

논문표절·제1저자 논란 반박... “학계 현실 고려하지 않아”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유사자료 누적에 따른 오해 주장
자녀 조기유학 논란엔 고개 숙여
“교육부 장관, 잘할 수 있을 것”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현실과 연구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 임용 직전까지 약 100편의 논문을 카피킬러 등 검증 도구로 점검했으며, 모두 유사도 10% 미만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검증단이 문제 삼은 논문은 대부분 2007년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사도 수치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누적되면 수치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메트로신문 기자 son@

주장했다.

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논문 상당수가 카피킬러에서 높은 복사율을 보였다”며 이공계와 인문계 논문 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표절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카피킬러는 단지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학문적 맥락을 중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려 ‘연구 가로채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공계 연구는 대부분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 과제의 일부로 진행되고, 제자들은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발전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재단 지침에 따르면 기어

도를 기준으로 제1저자를 정해야 하며, 제자는 실험 수행 등에서 역할을 맡을 뿐 연구 기획과 방법론 설계는 교수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공동연구 논문 중 제1저자로 등재된 경우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제자들과 협업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문에 실린 표가 유사한 것도 같은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이며, 이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딸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2001년부터 1년간 (본인과 배우자 모두) 미국에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한 경험이 계기가 됐다”며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국 학제와 맞지 않는 시점에 유학을 보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제 불찰”이라며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낸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과 관련해서

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였다”며 “자녀는 미국에서 별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등록을 확인한 뒤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표절 의혹, 제1저자 논란, 자녀 교육 문제 등은 교육 수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자진 사퇴 의향을 거듭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전에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하셨지만, 제 주변을 보면 몇몇 반대는 있었으나 22만 명 규모의 총내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다수의 교수 집단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시, ‘제2회 제물포 웨이브 마켓’ 개최

26일~27일 상상플랫폼 웨이브 홀

인천 도심에서 지역 브랜드와 빈티지 감성이 어우러지는 도심형 마켓이 열린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상플랫폼 웨이브 홀에서 ‘제2회 제물포 웨이브 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마켓은 인천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70팀과 국내 빈티지 셀러 20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역 상권과 창작자 간 시너지를 도모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 장소는 상상플랫폼 내 실내 공간인 웨이브홀이며, 주말 이틀간 진행된다.

‘제물포 웨이브 마켓’은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지난 6월 열린 1회 행사에 총 2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2회차 마켓은 ‘인천에서 느끼는 유럽’이라는 콘셉트로 빈티지 마켓을 강화했다. 유럽 현지에서 들여온 소품들을 중심으로 한 셀러 20팀이 참여하며, 로컬 브랜드와 어우러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로컬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DJ 공연, 브랜드 경매 등 매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셀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상품으로 진행되는 경매 수익금은 향후 로컬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민화 그리기, 자개, 보자기, 원목 공예 등 전통 소재를 활용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지역 경제와 연계된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간담회

“AI 기반 행정체계 혁신... 삶의 변화 이끌 것”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 등 과제 제시
“임기 마지막 1년, 실행의 시간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1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라며 ▲AI 기반 행정체계 도입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 ▲청년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은 통째나 외형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에 있다”며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자체 행정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민간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 작성, 매뉴얼 기반 질의응답, 문서 자동분석 등 실무 중심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공무원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AI 활용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사업에 AI가 시범 적용 중이며, 119 신고 분석, 어르신 안부확인,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CCTV 감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기존의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더해, 토지 매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입·건설 자금 용자·이자 지원 등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거래보다 거주가 핵심”이라며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2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이번 기금은 공급 유인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정책으로는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서울러’를 진로교육과 예체능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섯 번의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소득 공백을 겪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디딤돌소득’도 지속 운영된다. 오 시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운동공간 ‘펀스테이션’을 전 차치구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사업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은 누적 300만 명이 이용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독점과 보라매공원 등으로 확산 중”이라며 “한강은 연간 8200만 명이 찾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조만간 ‘한강버스’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청소년, 다자녀 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교통비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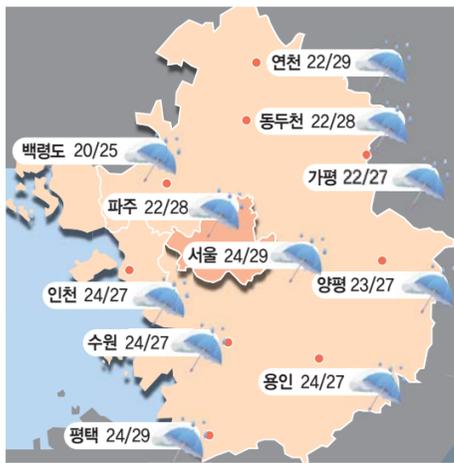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4 | 해질 / 19:52

7월 17일 (목)
음력 : 6월 23일

수도권 날씨
24~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트럼프, “푸틴에 실망”... 메르츠와 통화 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사진 뉴스
▲ 美 ‘러 무역국에 관세’ 위협에... 中 “불법·일방적 제재 반대”

▲ 캐나다 국민 84% 트럼프 불신, 다수가 대미협상 “강경 대응” 원해
▲ 선거 위기 日이시바, 美와 관세 협상 “반드시 성공한다”

▲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8월31~9월1일 텐진서 개최
▲ 엔비디아, 中 수출 재개했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휴전 한가운데